#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20호>
2002년 11월 25일(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http://www.ihufsan.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방철인 안양원 편집인겸 주간 김규진 법정대 김종원 인문대 홍운주 신문사 961-4151, 962-7126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966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외대리 산 20)



2 오늘의 한마디 — 이지은 신문사 사장 — 이제는 학생의 신문으로 미술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최병락씨. 오는 12월에 대대적인 미술콘서트를 준비 중이라는데… 그럼 2면에서 이사람을 만나볼까요.

3 제언 — 김지은 서양·불어 97 — 내년부터 등록금을 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데. 와~…. 어? 잠깐 난 카드가 없는데. 그냥 현금으로 분할납부하면 안돼? 뭐라구? 안된다구? 다른학교는 다 되는데… 안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 아니야?

6 사회 — 선거참여의 폭을 넓혀라! 다양하게 선거참여학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7 생활·문예 — 한국사회연구회, 사월문학, 기독학생회 SCA, 왕산 제2대학이 열띠전 당선된 총학생회에 몇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7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외봄계 학내 뱅뱅에 얽힌 이야기와 노곳때의 학보비평이 실렸습니다.

8 에세이 — 이번 문예면에는 독일에 대녀온 조성원씨의 여행기가 실렸습니다.

'학생회의를 위해'라고 말해놓고 카드분할납부를 도입한 대신 현금분할납부를 없애는 학교측이나, 당선되면 다음 날 아침 '당선사례'를 하겠다고 말해 놓고 사라져 버린 총학생회 당선자나 학생 무서운 줄 모르는 건 똑같군.


## 총학생회 선거

# 서울, 합동공청회 학생 참여 저조로 아쉬움 남겨

서울배움터 37대 총학생회 선거 합동공청회가 언론협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지난 21일(목) 오후 4시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1층 매점에서 열렸다.

37대 총학생회후보 우리삶속의 유쾌한 만남 '좋은예감' 의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강정훈(동양·중국어 98)조의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인 이번 공청회는 패널로 외대학보, 디아거스, 외대교육방송국, 여학생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도서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후보와 질의응답을 벌였다.

공청회는 △개회사 △후보소개 및 패널소개 △후보자 기조발언 △내부패널질문 △외부패널질문 △객석질문 △후보자 정리발언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후보자 기조발언이 끝난 후 패널들은 △36대 학생회 평가 △학원자주화 영역 △교육 △학생회 △정치·학생운동 △복지 △문화·동아리영역 △외부패널질문(여학생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도서관학생위원회)의 순서로 후보에게 질문했다.

을해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후보 유복재군은 을한해를 뒤돌아보라는 패널의 질문에 "외발추장으로 재단, 총장선출, 등록금문제에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외발추에서 자체준비한 강의평가를 위한 모니터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아쉬웠다"고 자평했다.

등록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학생들의견이 등록금 책정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등록금논의기구는 대학평위원회를 소집해 학교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후보 강정훈군은 구재단에게 공영화 동의의 대가로 1석의 이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구재단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외부패널로 참석한 도서관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인식(서양·불어 97)군은 "도서관 관련 공약이 눈에 띄지 않아 걱정스러웠지만 특별기구와 협력하여 일을 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내부패널로 외대교육방송국(FBS) 진행부장 권미란(사범·한국어교육 01)양은 "홍보부족으로 선거운동원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석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협의회 의장 이승준(자연·물리 97)군은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후보를 자세히 파악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는 26, 27일(수)양일간 실시될 총학생회선거에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당부했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 용인, 허환희 - 이동수 조 당선

## 서울, 4개 단대 선거 마쳐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깨다!깨!' 선거운동본부 허환희-이동수조가 당선됐다. 지난 21일(목) 어문관 206호에서 진행된 개표결과 허환희-이동수 조는 총 유권자수 6599명 중 41.5%(2739명)가 투표하고 81.16%(2223명)가 찬성, 15.48%(424명)가 반대, 무효율 3.25%(92명), 오차율 0.4%로 당선됐다. 이 날 같이 개표를 진행한 총여학생회의 오수민-이지원조는 총유권자수 3566명 중 40.88%(1458명)가 투표, 85.93%(1253명) 찬성, 10.42%(152명) 반대, 3.63%(54명)무효로 당선됐으며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선거에 장유리-우보라조 역시 총유권자수 1010명 중 55.84%(564명) 투표, 87.58%(494명 )찬성, 11.87%(67명) 반대, 0.54%(3명) 무효로 0.889%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 24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환희(동유럽·노어 97)양은 "반대든 찬성이든 이렇게 모인 2천여명의 학생들 모두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 이맘때쯤 외롭지 않은 선관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24대 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이동수(인문·사학 00) 군은 "투표에 참여해 준 학생들과 함께 선거를 준비한 운동원들에게 감사한다. 왕산 학생회를 돌아보는 계기였다. 내년 한 해 열심히 살겠다"라고 전했다.

총여학생회장 당선자 오수민(서유럽·불어 99) 양은 "당선되기까지 조마조마하고 걱정 많이 했는데, 앞으로 당차게, 힘차게 해 나갈 것이다. 여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라고 밝혔다. 부총여학생회장 당선자 이지원(서유럽·불어 99)양은 "투표기간이 선거운동기간보다 더 힘들었다. 학생들이 믿어줘서 고맙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장유리(서유럽·영어학부 01)양은 "지난해 부위원장으로 주로 학내 일을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도 대학생협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당선자 우보라(서유럽·서반아어 00)양은 "투표기간이 선거운동기간보다 더 힘들었다. 높은 투표율과 높은 찬성율이라 기쁘고 믿어줘서 고맙다"라고 밝혔다.

▲24대 총학생회 개표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자연 한편, 서울배움터 서양어대 학생회장에 이세영(서양·영어 97)-최은규(포르투갈어 00)조가 재적인원 2642명중 40.8%(1078표)의 투표율 중 찬성 90.2%(972표), 반대 4.6%(50표), 무효 5.2%(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와 관련 이군은 "학생들의 절반에 못미치는 지지결과를 보고 스스로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 임기가 끝났을 때 학생들의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범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홍지희(불어교육 01)양은 재적인원 478명중 62.8%(300명)의 투표율 중 찬성 83%(249표), 반대 14.7%(44표), 무효 203%(7표)를 얻었다. 홍양은 "학생회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학생들 많이 만나 학생회가 학생들의 길동무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학생회, 우리 사범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이상근(신문방송 00)군은 총 재적인원 674명 중 51%(344표)찬성96.7%(652표), 반대2.7%(18표), 무효 0.9%(4표)를 얻었다. 이군은 "사회대내 계열제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 힘들겠지만 학생회에 대한 격려, 질타는 항상 필요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동양어대 학생회장에는 이현욱(중국어 01)군이 당선됐다. 이군은 재적인원 1799명 중 42.4%2l 763명이 투표하고 87.8%(670표) 찬성, 7.9%(61표)반대, 1.8%(32표)무효표를 얻었다. 이군은 "과학생회, 과학회, 소모임을 살리는 것이 단대학생회의 큰 사업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각과의 소모임이나 학회 등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등 과학생회 위주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 서울, 26 · 27일 선거 진행

## 용인, 단과대별 선거 진행

서울배움터 37대 총학생회장 후보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강정훈(동양·중국어 98)조에 대한 찬반투표가 오는 26·27일(수)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건물 로비에서 치러진다. 투표시에는 신분증 또는 학생증을 제시해야 하며, 투표용지의 유·무효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나민오(법 00)군이 단독 입후보했고 오는 25일, 26일(화) 선거가 치러지며, 상경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이범한(경제 00)군이 입후보했으며 27일, 28일(목) 이틀간 상경대 건물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한편, 용인배움터에서는 단대별 선거가 치러진다. 서유럽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원종관(영어 98)군이 입후보했으며 오는 27일, 28일(목) 이틀간 어문관과 교양관에서, 동유럽대 학생회장 선거에는 전유리(노어 01)양이 입후보했으며 오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3일간 교양관에서 치러진다.

또한, 자연대 학생회선거에는 장호식(정보통계 01)군이 입후보했으며 오는 26일, 27일(수) 이틀간 자연관 로비에서, 정보산업공과대 학생회장 선거는 윤태호(정보통신공 96)군이 입후보했으며 12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공대로비에서 진행된다. 인문대과 경상대, 동양학대 및 동아리 연합회는 후보등록자가 없어 선거가 미뤄졌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 여중생 사건 무죄판결, 반발 확산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 사건와 관련, 과실치사로 기소된 미군 2명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져 사망 여중생 유가족을 비롯한 대책위·시민단체·일반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8군 군사법정은 지난 20일(수)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데 이어 22일(금) 운전병 마크 위커 병장에게도 무죄평결을 내렸다. 검사가 항고할 수 없는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여중생 미군 궤도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미군 2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납득하기 힘든 결론이 내려져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우리 땅을 두 번 죽인 사기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제점으로 △재판부와 검찰의 무의지 △미군이 사고 미군을 평결하는 비상식적 재판 등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 재판권을 우리에게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중생범국민대책위원회는 23일(토) 오후 용산 미군기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를 돌며 항의규탄 및 살인미군 처벌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미국 백악관 대표단 파견, 100만명 서명용지 백악관 전달, SOFA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권이 SOFA 재개정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전국 집회 개최와 국제 여론에 이를 직접 호소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SOFA 재개정 문제가 한·미간 뜨거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찍으세요?!

찍으세요?!
지금 나온 후보가 맘에 드신다면
찬성!!
미덥지 않으시다면
반대!!!
여러분의 손에 앞으로 1년
외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선거
· 기간: 26일(화), 27일(수)
· 장소: 서울배움터 학내 곳곳의 투표소
※학생증은 필수입니다.


## 경계인의 사색

공안기관에 의해 '친북인사'로 분류돼 번번이 귀국이 좌절되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8) 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새 책이 나왔다. 분단된 조국의 남과 북, 동양과 서양, 부국과 빈국, 전통과 현대, 현대와 탈현대를 경계짓는 선 위에서 갈라진 두 세계 사이의 긴장과 함께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본 여러 생각들을 모은 이 책을 송교수는 "경계인의 사색"이라 이름지었다.

1부 동서남북의 만화경에서는 산문형식의 글을, 2부 통일시대를 위한 성찰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열어놓은 통일시대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이어 3부는 송교수가 오래 전부터 제기해 온 북한 연구 방법론인 '내재적 방법론'에 따라 북한을 다시 살펴보고, 4부는 1부에서 3부까지의 글들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송두율 지음
/ 한겨레신문사
/ 9,000원

## 빈 학자 5일과 166일 사이에는…

▲ 2001년 6월 2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이 미 공군 소속 티모시 우들랜드 중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후 7월 3일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그리고 9개월 뒤인 2002년 3월 28일, 일본 지방법원은 티모시 우들랜드 중사에게 징역 32개월형을 선고했다.

▲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신효순(14), 심미선(14)양이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숨졌다. 5개월이 흐른 20일(수)과 22일(금), 미8군 군사법정은 담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위커 병장에게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합의로 무죄평결을 내렸다. 검사가 항고할 수 없는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여중생 사고와 관련된 재판은 끝났다.

▲ 21일(목), 동두천 켐프케이시 앞에서는 여중생범국민대책위원회가 무죄평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자리에서 문정현 신부와 한상렬 목사는 삭발을 자청하고 나섰다. 태극기를 몸에 두른 채 얼마남지 않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남김없이 잘라낸 한상렬 목사는 울부짖었다. "은폐이 떨리고 있다. 치솟아 오르는 이 분노를 어찌할 것인가. 살인자가 무죄라니 어찌할 것인가. 살인미군 처벌하라, 주한미군 물러가라."

▲ 우리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둘이나 미군에 의해 죽었다. 도대체 왜 미국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인가.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미국 재판장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하는가. 재판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미군의 장갑차가 두 여중생의 몸을 지나간지 벌써 166일째다.

양창모 사회부장

이 사람

비즈매직엔터테인먼트 최병락(서유럽·서반아어 97)씨를 만나

## 마술은 기쁨의 매신저

"마술은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에게 삶의 여유와 추억을 주는 것이 마술이 가진 큰 매력이 아닐까요" 비즈매직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병락(서유럽·서반아어 97)씨의 말이다.

작년 6월 국내 최초로 마술 기획을 위해 설립된 비즈매직엔터테인먼트는 얼마전 SIM국제 마술대회등 국제대회 3관왕을 한 최현우(상경·경제 99)군과 국내 최연소 프로마술가 이은결군이 주요 매지션(MAGICIAN)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씨는 "학생의 신분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공부를 주변시하게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또 사업초기 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가 취약한 상황이여서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라며 사업의 어려움을 말한다.

마술기획, 마술강연, 마술용품 인터넷 몰 등 여러 마술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씨는 "간혹 마술이 사기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술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마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의사가 병마에 힘겨워하는 환자를 위해 마술을 배우고 펼친다"고 말하는 마술 예찬론자다.

평소 마술에 대해 궁금증과 몇번의 시도 경험이 있던 기자가 최씨에게 마술을 잘 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것이 있는지 묻자. 최씨는 "마술실력의 60%이상은 노력이다. 얼마나 연습하는지가 실력의 수준을 결정한다. 나머지 30%는 자신감이다. 사람들앞에서 기술을 펼쳐야 하니 자신감도 중요하다. 나머지는 끼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마술을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지를 잘 생각하고 마술을 하면 그만큼의 실력이 나온다"고 말해 노력이외의 다른 특별한 수를 기대했던 기자에게 실망을 주었다.

한편 다음달 21(토), 22일(일) 정동A&C에서 최현우군과 이은결군의 크리스마스 매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최씨는 "이번 공연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맞춰 펼쳐지는 마술공연으로 조명과 음향 그리고 마술이 잘 짜여져 구성돼 사람들에게 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술이 사람들 사이에 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으면 한다"고 이번 행사를 소개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으로 '마술가'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술이 대중화된 사회를 꿈꾼다는 최병락씨, 마음먹은 데로 사물을 사라지게도 하고 나타나게도 하는 마술처럼 그의 꿈이 이뤄지길 빈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 용인, N.S.M 공연 열어

오는 27일(수) 오후 6시 용인배움터 락 음악동아리 N.S.M(Natural Sound of Music)의 15번째 공연이 자연대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동아리 부원들이 총 4개팀으로 나뉘어 진행한다. 01학번으로 이루어진 메이저(Major)팀에서는 그룹 메탈리카(Metallica)의 곡 '크리핑 데스(Creeping Death)'를, 02학번 마이너(Minor)팀은 그룹 오프 스프링(Off Spring)의 곡 '프리티 플라이(Preetty Fly)', 고학번 오비(Old Boys) 팀은 롤러코스터의 '습관' 등의 곡을 연주한다. 째즈와 클래식을 위주로 모든 장르를 연주했던 이전 공연과는 달리 이번에는 헤비메탈과 하드코어 등의 강렬한 사운드의 곡들을 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회장 서충원(자연·전자물리학 01)군은 "올해의 마지막 공연인 만큼 락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관람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스물 두번째 철학인의 밤 행사 열려

오는 30일(토) 대학로 옥스포드 호프에서 스물 두번째 철학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 철학인의 밤은 인문학이 점점 소외돼 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에 대한 자부심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는 1학년이 주축이 되어 춤·노래·밴드부 공연 등 여러가지 볼거리를 교수와 졸업생 선배들에게 선보인다. 또한 식사와 간단한 술자리 속에서 교수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이 재학생 후배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오승배(인문·철학 97)군은 "1학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고맙다"며 "이번 행사가 철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V.E.C 영어말하기 대회 열어

용인배움터 영어회화동아리 V.E.C(Vanguards in English Conversation)가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15번째 영어 말하기 대회(speech contest)를 열었다.

지난 21일(목)에 열린 이번 행사는 총 15명이 참가해 자유주제로 약 3분 분량의 원고를 각각 연설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중간에 휴식시간을 두어 퀴즈를 푸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맞춘 사람에게는 노트 등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이번 대회에서 'Let's Smile'이라는 주제로 1등을 한 박지영(서유럽·영어 01)양은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2등인 박보연(서유럽·영어 99)양과 3등 민경훈(인문학부 02)군은 각각 5만원과 3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받았다.

이에 회장 송미해(서유럽·영어 01)양은 "참가자 전원의 노력이 돋보인 뜻깊고 보람있었던 대회였다"라고 전했다.

## 도서관 예산 증액서

서울배움터 도서관학생위원회(도학위)가 지난 19일(화) 도서관 앞에서 벌인 바자회수익금 30만원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냈다.

또한 도학위는 이날 벌인 '도서관에산증액서 명운동'에서 625명의 학생이 서명했다고 알려왔다. 도학위위원장 김인식(서양·불어 97)군은 "우리학교 예산은 양 배움터 합해 13억으로 경쟁학교에 크게 못미친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우리학교 도서관 예산 증액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철학학회 심포지엄

서울배움터 중국어과 사회과학학회 '철학세계연구학회' 심포지엄이 오는 29일(금) 오후 5시 30분 대학원 210호 강의실에서 열린다.

'일상적 파시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생운동 △주민등록증 제도 △군사주의 △대학생활이라는 4개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회장 이재권(01)군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30일(토) "유고인의 밤" 열어

오는 30일(토) 오후 5시 회기역앞 호프 W&W에서 용인배움터 유고어과 '유고인의 밤' 행사가 열린다.

졸업생과 재학생 선·후배·교수간의 유대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2학년 재학생의 전공수행평가 △춤과 원어노래 공연 △재학생과 졸업생 선배와의 사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유고어과 학생회장 이한민(98)군은 "모두 참여해 단합된 유고어과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 행사가 선·후배간의 연결고리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히아또 신.고브토리 공연

'해가 비치는 곳'이라는 뜻의 용인배움터 일본어과 원어연극학회 히아또가 지난 21일(목) 열두번째 정기공연을 열었다. 후복관 4층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신.고브토리'(新.こぶとり)이다. 이는 혹부리 영감이라는 뜻의 '고브토리'(こぶとり)에 새로울 '신'(新)을 붙인 '새로운 혹부리 영감'이라는 뜻이다. 혹부리 영감이 비를 피하다 도깨비를 만나 혹을 뗀다는 내용의 이번 연극에는 흥겨운 춤과 노래가 가미됐다. 학회장 김동훈(01)군은 "원어 연극을 하다보니 대사의 감정전달이 힘들었다"라며 "9명의 학회원들이 한 학기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부듯하다"라고 전했다.

## 용인 그림사랑 작품전 열려

지난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용인배움터 만화동아리 '그림사랑'의 작품전이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고학번과 새내기들이 모두 참여해 30여점의 그림을 선보였다.

만화 외계인 한생제(가제) '닥터 마 세이브어스(Dr.마 Save us)' '고백' 은 병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생각을 보여주었으며 선거철을 반영한 민평도 전시됐다. 이와 관련, 동아리 회원 권소영(자연·정보통계 01)양은 "회원들이 전문 미술인은 아니지만 열정이 있어서 좋은 전시회가 됐다"라고 전했다.

## 서울, 공연·강연

· 작은 실천을 소중히 하는 터키어과 노래패 타울림의 제 6회 정기공연이 오는 27일(수) 오후 6시 서울배움터 대학원 소극장(6104)에서 열린다.

· 못잖춘마디의 제 11회 정기공연 '소녀의 눈을 보다'가 25일(월) 오후 5시 반 서울배움터 대학원 소극장(6104)에서 열린다.

· 메마른 땅에 노래를 뿌리는 상경대 노래패 맥박의 제 12회 정기공연 '우리.. 함께였잖아'가 26일(화) 오후 5시반 인문과학관(1간물)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 중국어과 학회 마방(魔方)의 제 5회 심포지엄 '한국 속 화교 들여다보기'가 오는 26일(화) 오후 5시 반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열린다.

##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11월의 테마 - 세계 단편 애니메이션 걸작선

### 로맨티카

· 노총각의 꿈(크레이그 웰치), 조지와 로즈마리(데이빗 파인), 현絃(웬디 틸비), 대혼란 (리차드 콩디), 블랙 플라이(크리스토퍼 힌튼)
· 때 : 11월 26일(화) 오후 5시 30분
· 곳 : 서울배움터 대학원 411호(6411)

오스카와 칸느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작품들로 평범한 사람들의 색깔 있는 사람 이야기를 담은 성인용 애니메이션. 사랑에 대한 여러가지 시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따뜻한 유머와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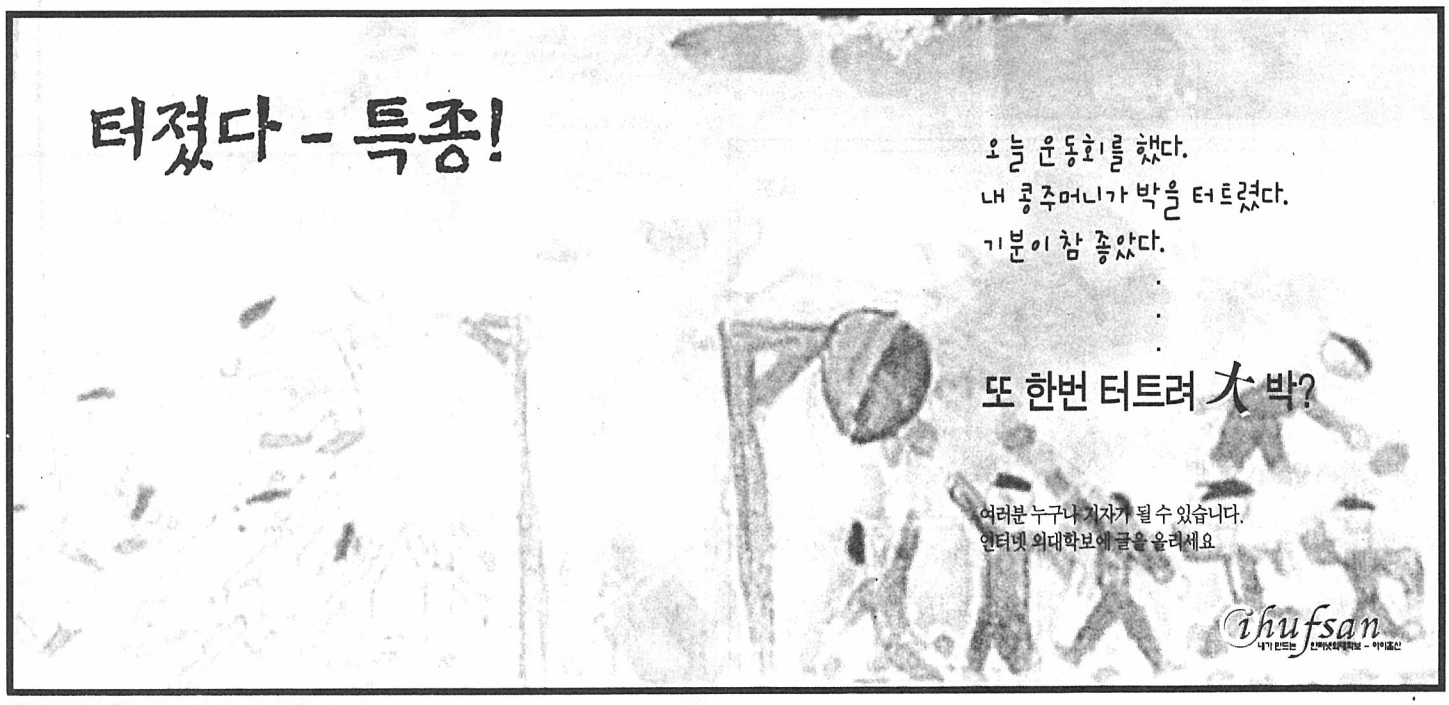
▶ 다음 주(마지막) 상영작: The Snowman 외 2편 12월 3일(화) 오후 5시 30분

## 서울배움터

| 구분 / 요일 | 학생 | | | | | |
|---|---|---|---|---|---|---|
| | 아침 | 점심A | 점심B | 점심C | 저녁 | 면 |
| 월 (25일) | 오징어콩나물찌개 (₩1,400) | 잡채밥 (₩1,500) | 소고기떡볶음덮밥 (₩1,500) | 대구매운탕 (₩1,400) | 부대찌개 (₩1,500) | 짜장면 (₩1,000) |
| 화 (26일) | 북어국밥 (₩1,500) | 상추불고기비빔밥 (₩1,500) | 팔보채 (₩1,400) | 버섯김치찌개 (₩1,400) | 오징어볶음덮밥 (₩1,300) | 바지락칼국수 (₩1,200) |
| 수 (27일) | 생선조림백반 (₩1,000) | 케이준리이스 (₩1,600) | 돈육볶음덮밥 (₩1,400) | 닭개장 (₩1,400) | 갈비탕 (₩1,600) | 해물스파게티 (₩1,200) |
| 목 (28일) | 소고기국밥 (₩1,500) | 산채비빔밥 (₩1,400) | 치킨커틀렛 (₩1,600) | 순두부찌개 (₩1,400) | 사골우거지국밥 (₩1,400) | 떡만두국 (₩1,200) |
| 금 (29일) | 애호박된장찌개 (₩1,300) | 비프하이라이스 (₩1,400) | 탕수육덮밥 (₩1,500) | 설렁탕 (₩1,500) | 김치찜라프 (₩1,200) | 잔치국수 (₩1,000) |

## 용인배움터

| 구분 / 요일 | 어문관 | | | 후복관 | | |
|---|---|---|---|---|---|---|
| | 중식 1 | 중식2 | 분식 | 일품 | 스페셜 | 양식 |
| 월 (25일) | 제육볶음덮밥 (₩1,500) | 설렁탕 (₩1,800) | 돌면 (₩1,200) | 육개장 (₩1,800) | 참치비빔밥 (₩1,500) | 포크스튜 (₩2,000) |
| 화 (26일) | 카레덮밥 (₩1,500) | 육개장 (₩1,800) | 유부국수 (₩1,200) | 떡만두국 (₩1,800) | 짬뽕밥 (₩1,500) | 함박스테이크 (₩2,000) |
| 수 (27일) | 오삼덮밥 (₩1,500) | 반계탕 (₩1,800) | 짜장면 (₩1,200) | 잡채덮밥 (₩1,800) | 돈육김치덮밥 (₩1,500) | 쉼볶음밥/하이스스스 (₩2,000) |
| 목 (28일) | 햄하이라이스 (₩1,500) | 스파게티정식 (₩2,000) | 떡국 (₩1,200) | 낙지불고기덮밥 (₩1,800) | 콩나물국밥 (₩1,400) | 미트소스스파게티 (₩2,000) |
| 금 (29일) | 소고기볶음밥 (₩1,500) | 참치회덮밥 (₩1,800) | 튀김우동 (₩1,200) | 꼬치어묵백반 (₩1,800) | 만두수제비 (₩1,500) | 데리야끼치킨 (₩2,000) |



# 카드없는 외대인은 슬프다

## 등록금 카드분할납부 실시로 현금분할납부 폐지, 제휴회사 - 국민 · LG2개뿐

2003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카드분할 납부 시행에 따라 현금분할납부는 폐지된다. 납부대상은 신입생을 제외한 학부 · 대학원생이며 국민카드(http://www.kookmincard.co.kr)와 LG카드(http://www.lgcard.com)사의 홈페이지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다. 두 카드사는 3개월간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최장할부는 36개월이며 16.7%의 이율을 적용한다. 서울배움터 총무처는 공문을 통해 '학부모의 일시납 부담을 경감시키는 시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카드납부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의 등록금 3회 분할납부는 신용카드로 할부 대체할 수 있으므로 폐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14일(목) 학내정보 사이트 홈스라이프 (http://www.hufslife.com)에는 '분할납부 폐지… 말도 안돼요'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올랐다.

「정말 어이가 없군요. 신용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신용카드로 분납되니까 3회 분할납부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집은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다음 학기부터 전 어쩌죠?」

위와 같이 카드가 없을 경우 분할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생긴다. 이에 대해 용인배움터 학생처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직원은 "등록금 분할납부자 약 400명 중 가족 중 아무도 카드가 없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이지영(서유럽 · 이태리어 01)양은 "카드납부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기존의 현금분할납부와 카드분할납부를 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처는 "학칙도 변경되면 예전의 학칙과 병행하지 않는다"며 현금분할과 카드분할, 두가지 제도를 병행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융자제도를 이용하거나 학생처와 경리과에 찾아와 상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당국은 등록금 납부 카드회사를 2개로 제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신입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등 학생들의 편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가 2개로 제한된 것에 대해 서울배움터 경리주임 권정득씨는 "국민카드의 LG카드가 가장 보편화돼 있어서 선정했으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대학의 경우 우리학교와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국대는 4개의 카드회사와 제휴를 맺어 등록금 카드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현금분할납부도 병행하고 있다. 경희대와 서울여대, 홍익대의 경우도 기존의 현금분할 납부와 카드분할 납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금 분할 납부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등록금 카드분할 납부제도는 우리학교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등을 보고 문제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학교의 좋은 예가 있고, 도입 전에 이미 문제점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권의를 외면한 채 등록금 카드분할납부가 시행된다면 도입 후 문제가 발생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사립학교법 개정' 대선 후보들 입장

# 권영길 · 노무현 후보가 가장 전향적, 사학법국본측 "이 후보 주장 사학재단과 유사"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대선 후보 중 권영길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가장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법국본)'가 18일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 항목은 △사학세습과 족벌운영 △교수회 · 학생회 · 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의 공동성과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 방안 등 모두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법국본측의 각 후보자 답변 분석에 따르면 권영길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전체 항목에 걸쳐 가장 전향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몽준 후보는 사립학교제도의 기본개혁과제인 공익이사제도 도입과 사립 초 · 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기구화에 대한 찬반 표명은 회피하고, 부패 문제 척결방안과 학교운영 민주화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이회창 후보의 경우 사학재단 운영의 탄력성 확대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항목별 답변은 하지 않고 포괄적 입장으로 부패 반대의 원칙론적 입장 천명과 더불어 사학(재단)의 다양성 인정, 광준화정책 반대와 경쟁입시제도 도입의 기조를 사립학교체계의 변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후보의 답변에 대해 사학법국본측은 "이 후보의 주장은 그 동안 사학재단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해온 것과 흡사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사학법국본측은 "권영길, 노무현 두 후보의 경우 항목별 찬반 여부가 명확히 표현되었으며, 항목별 입장의 서술은 노무현 후보의 답변이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경우 사학법국본측이 요구한 법개정 주요과제별 답변 방식과는 무관하게 법개정 과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을 간단히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해 사학법국본측은 "사실상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로 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사학법국본측은 이러한 분석에 대해 "이 후보는 민감한 사안임과 시기적 촉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교육발전에서 선결과제이며 2000년도부터 이 후보를 비롯한 한나라당에 수차례 법개정 촉구를 해온 바 있기에 다시 절차와 시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변명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사학법국본측은 이번 질의서 결과에 대해 "사립학교법개정운동이 2000년 범국민운동으로 출발한 이후 사립학교 관련 3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에 발의된 바 있음에도 개정문제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라며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이 조속한 성사를 위해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에게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듣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unews(http://www.unews.co.kr)

사설

## 선거참여와 정치풍토개선

16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다. 노 · 정 단일화 극적타결이 대선 구도에 새로운 흥미진진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다행이지만, 정책대결을 벌여야 정당들은 그저 세 불리기, 타당 흡집내기와 구시대적 정략 등 약은 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대선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또 한차례 정치혐오와 허탈감만 안겨주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소신과 국가경영 구상을 확실히 제시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무작정 다른 후보와 정당을 비난하여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정치혐오감을 조장할 게 아니라 어떠한 민주적 이상과 실현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대권에 도전하는지, 자기당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으로 국민을 설득할 때다. 국민들도 자신도 이견을 가진 타인을 비난하기 보다는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에 더 관심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래 정치나 선거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한다기보다 덜 나쁜 정치가 덜 사악한 악마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유사이래 정치는 세계사에서의 숱한 왕조들에 있어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 야비하고 비도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가 또는 통치자는 권력을 잡기 위해 마키아벨리 식 수법을 써야하고 필요하면 자식이나 부모까지 희생시키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여왔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몇몇 왕들도 왕위를 지키기 위해 친족을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정치와 권력의 속성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통치자의 사고의 중심이 자아에 있느냐 국민에 있느냐에 따라 역사는 양지와 음지를 거쳐 왔고, 시대에 따라 통치자의 자질과 국민의 수준이 합일될 때 도덕적인 정치가 꽃을 피웠다.

이러한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젊은 유권자들은 앞날을 위해 냉정하게 사고하고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팽배한 정치혐오 감정을 불식하는 일익을 담당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앞에 다가온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신성한 표를 주어야 하며 앞으로 어떤 후보도 젊은이들이 배제된 정책을 펼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가능하면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선거운동을 예의주시하고 후보들의 토론 등을 경청하여 올바른 판단을 길러야한다. 젊은이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세계 평화, 남북통일, 빈부격차의 해소, 인권, 자구환경문제 등을 위해서라도 선거 혁명을 통하여 정치풍토를 바꿔야한다.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가능하면 부재자 등록을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빠짐없이 투표당일에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 무관심이 젊은이들의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지도록 부추기려는 불순세력에게 발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리행사인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참여는 민주적으로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참된 자유를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의 참 목적은 자유의 실현에 있다는 스피노자의 말이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에 와 닿는 시점이다.

외 · 대 · 만 · 평 <3>

허 진

2003학년도 전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전과자격

제2학년 진급대상자로서 34학점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3.500상인 재학생

※ 다음의 경우는 전과할 수 없음.

· 복수학과에 이중 지원한 자(이중 지원자는 학과별 전과전형의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3개 학기 이상 재학한 자

· 휴학 중인 자(단, 복학예정자는 전과신청 기간에 복학신청한 후 지원 가능함)

· 비사범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 전과

· 입학당시 중앙모집단위(계열, 학부)내 전과

· 캠퍼스간 전과

◈ 선발기준

지원학과에서 선발기준을 정함(학업성적 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을 포함 할 수 있음)

◈ 전과시행 일정 (전과 전형일의 시간은 학과에서 정하여 고지함)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전과원서 접수 | 2003. 1. 16(목) ~ 1. 17(금) | 학사지원과 (용인교무과) |
| 학과별 전형 | 2. 4(화) | 지원학과 |
| 전과확정자 발표 | 2. 17(월) | 학사지원과 (용인 교무과) |

◈ 지원방법

가. 구비서류 :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사진 1매(3cm x 4cm), 전형료20,000원

나. 신청자는 전과원서(사진부착)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학사지원과 (용인캠퍼스 학생은 용인 교무과)에 접수증을 수령함

다. 해당학과에 전형 방법 및 시간을 확인한 후 접수증을 지참하고 학과별 전형에 응시함

◈ 유의사항

가. 전과생의 전제학과 취득성적은 전입학과의 교양 또는 자유선택성적으로만 인정됨

나. 전과생은 제2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또한 전제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다. 전과로 인한 등록금차액은 바로 납부하거나 환불받아야 함

◈ 학과별 선발인원

(서울캠퍼스 2학년)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
| 영어 | 14 | 인도어 | 3 |
| 불어 | 9 | 타이어어 | 3 |
| 독일어 | 9 | 이란어 | 3 |
| 노어 | 5 | 정치외교학 | 5 |
| 서반아어 | 9 | 행정학 | 5 |
| 이태리어 | 3 | 신문방송학 | 5 |
| 포르투갈어 | 3 | 법학 | 15 |
| 네덜란드어 | 3 | 무역학 | 8 |
| 스칸디나비아어 | 3 | 경제학 | 8 |
| 중국어 | 10 | 경영학 | 9 |
| 일본어 | 10 | 영어교육 | 3 |
| 아랍어 | 3 | 불어교육 | 3 |
| 헝가리어 | 5 | 독일어교육 | 3 |
| 태국어 | 3 | 한국어교육 | 3 |
| 베트남어 | 3 | | |

(용인캠퍼스 2학년)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학과(전공) | 모집인원 |
|---|---|---|---|
| 철학 | 4 | 미얀어 | 4 |
| 사학 | 4 | 태국어 | 4 |
| 언어인지과학 | 4 | 아프리카어 | 4 |
| 영어 | 11 | 인도어 | 3 |
| 불어 | 7 | 무역학 | 5 |
| 독일어 | 7 | 경제학 | 4 |
| 노어 | 4 | 경영정보학 | 4 |
| 서반아어 | 7 | 수학 | 4 |
| 포르투갈어 | 4 | 정보통계학 | 4 |
| 이태리어 | 4 | 전자물리학 | 4 |
| 폴란드어 | 4 | 화학 | 5 |
| 루마니아어 | 4 | 화공학 | 5 |
| 체코어 | 4 | 생명공학 | 5 |
| 헝가리어 | 4 | 전자공학 | 5 |
| 유고어 | 4 | 디지털정보공학 | 5 |
| 중국어 | 4 | 컴퓨터공학 | 6 |
| 일본어 | 4 | 정보통신공학 | 5 |
| 아랍어 | 4 |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 5 |

2002. 11

교 무 처 장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공고

2002학년도 전기(2003년 2월)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대상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2002학년도 전기(2003년 2월) 졸업예정자

◈ 제출기간

2002. 11. 25(월) ~ 11. 29(금)까지

◈ 제출장소

서울캠퍼스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 용인캠퍼스 교무과

◈ 제출서류

가. 무시험검정원서(학교수업증지 500원권 2매 부착) - 1부
(무시험검정원서 해당대학 교학과 비치)

나. 주민등록초본 - 1부

※ 제2전공 및 복수전공 교직이수 자는 수업증지 500원권 1매 추가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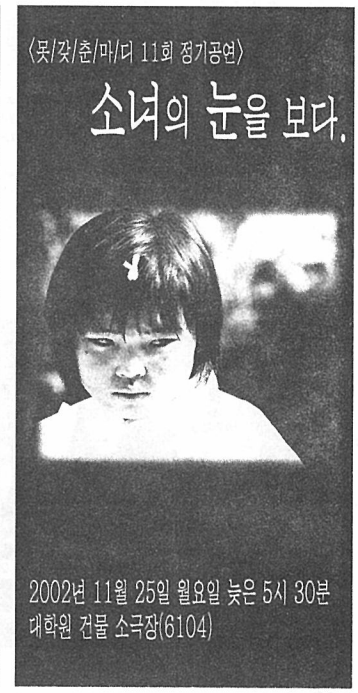
◈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나. 교직과정이수자(비사범대학)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리도 제1전공(제2전공, 복수, 부전공 포함) 및 교직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미만이거나, 교직필수과목 및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미이수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 됨

2002. 11

사 범 대 학 장



서울배움터 37대 총학생회후보 정견 토론회

# 등록금 논의기구는 대평위를 통해 학교측과 논의할 것

## 수강신청 해결책으로 모의수강신청제 제안

▲사회자 : 동아리 연합회장 이화준
▲패널 : 외대학보사 대학부장 권정우
디아거스 정기자 서은진
외대교육방송국 진행부장 권미란
▲장소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휴게실
▲시간 : 11월 21일(목)

**(36대 학생회 평가)**

***이번 36대 총학생회를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평가해달라.***

정후보(정): 긍정적 측면은 학원자주화투쟁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간 지속해 왔던 재단개혁 투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다. 또한 총장선출부분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던 부분, 등록금 투쟁을 학생들과 함께 쾌치면서 환불을 받아낸 점들이 성과이다. 반면에 함께로 지적되어야할 부분은 민주적인 운영이 부족이다. 가장 크게는 한총련의장 출마에 있어서 학생들 또는 회체계내에서 충분히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출마를 결정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지적되야 할 것이다. 또,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했지만 자키지 못한 일부 공약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약을 어긴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들이 큰 한계다.

> 등록금 협상시 예산이 책정되고 논의, 결정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정후보는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부후보는 동양어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스스로를 평가 해달라.***

부후보(부): 동대 학생회장으로써 많이 부족함이 있었고,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고 비록 적은 수의 집행부였지만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주인으로 세울수 있을까 고민도 했다.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열심히 살려고 했으나, 많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또한 부족한 면들은 내년을 준비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채워나가겠다.

정: 외발추가 총학생회특별기구인 만큼, 총학생회가 해야할 중요한 학내사항이나 학자투쟁에서 외발추가 정책을 제시하고 같이 투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크게는 겨울방학부터 시작했던 등록금 투쟁, 5월중에 있었던 총장선출투쟁, 2학기에 계속했던 재단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재단발전위원회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학생위원회도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나름대로 그런 활동들은 성과도 남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강의평가제도의 경우 모니터 학생모집을 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60명 정도 만 모집해 그 사업을 폐기하게 된 점이 많이 아쉽다. 강의계획서 제출은 2학기때 대부분의 과목이 강의계획서가 제출되면서 일단 잘 된 것 같다. 올 한해 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쓰면 외대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학원자주화)**

***공영화방안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총학생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정: 올해 7월부터 재단발전회의가 3개 위원회에 걸쳐 열렸고 최종적으로 공영화를 우선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합의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고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2003년인 만큼 지금까지 왔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다른 구성원들을 견인하고 또한 지켜나가는 것이 총학생회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등록금책정위원회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학교당국과 등록금 협상을 함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정: 등록금 책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인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등록금책정위원회란 기구에서 등록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등록금책정위원회의 기본정신인 예산이 책정되고 논의, 결정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7대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학교측과 면담을 통해서 우선 학생들이 바라는 것을 중심으로 학교의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등록금논의기구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대학평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기숙사건립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부: 현재 학교에서도 기숙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진행상태가 어디까지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본관을 조기에 완공해서, 기숙사 건립을 시작할 예정이고 또 회사에서 기숙사를 세워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교육영역)**

***수강신청의 해결책으로 모의수강신청제를 내놓았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현 수강신청제도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 수강신청에 관련해서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접속자수가 너무 많다보니 접속이 잘안되는 부분, 온라인 상에서 수업인원제한이 있어서 들고 싶은 수업을 못 들는 2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동시접속자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수업인원)제한을 심하게 해 놓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6월에 모의로 수강신청을 해놓고, 방중에 분반, 강사섭외 등을 해결해 놓으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의 질 제고와 관련된 공약이 강의개설권제도와 강의평가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부: 우리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강의가 다양하지 못하고,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강의개설권제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면 그 강의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도 직접 강사를 추천해서 강의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수업의 질 관련해서 강의평가가 제대로 되야한다는 생각이다. 당선된 후, 직접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만나면서 강의평가도 직접 받고 강의 평가한 내용들을 발간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그나마 강의의 질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지 못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공간부족입니다. 본관이 지어지는 2003년 말 이전에는 이 강의개설권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부: 알아본 결과, 지금 있는 강의실도 강의실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실제로 강의가 없는 강의실도 많이 있다. 강의실의 활용률을 충분히 높인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장 후보 유복재

***보다 싼 비용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 박람회보다는 교환학생제도를 늘리는 것이 외대인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정: 우리학교는 각 나라별로 자매결연 맺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그런데 교환학생 같은 제도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외국에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학교에서 숙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외대로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다. 때문에 우리학교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그래서 교환학생제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교환학생제도 등 국제교류도 활발히 하도록 학교측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겠다. 어학연수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담장 총학생회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환학생 등 국제교류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용인시 부속 외고 설립에 관련해, 교원 채용에 있어 우리학교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임용쿼터제를 추진함에 있어 난제는 무엇인가?***

부: 사범대학생이나 교직이수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교생실습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생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속고가 생기면 교생실습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교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어에 자질 있고 훌륭한 능력을 가진 우리학교 학생이 일차적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내놓지 못했는 학교측과 협의하겠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 같다.

▲정견토론회에 참여한 37대 총학생회 후보 유복재(좌)-강정훈(우) 조

**(학생회 영역)**

***정후보가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참여의 저조가 학생회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2%모니터링제도는 학생들을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 당연히 학생회가 하는 일에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면 그 학생회는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옳은 얘기다. 서울배움터 7,000학생들 중 2%라고 하면 140명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요즘 학생들을 만나기 좋은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다. 기존의 학생회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하지 못했다. 140명정도면 작은과에서 3명, 50명정도과에서는 4명, 좀더 큰과에서는 5명정도 모집하면 가능하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과 주고받고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등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

***공약집을 보면 학생회 회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기 배경과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학생회 회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달라?***

정: 전면적개정이 아닌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회칙에는 추상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선거와 관련된 것도 선거관리규정과 회칙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회칙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고 나와있고 시행세칙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고 나왔다. 우리 의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견 수렴해 가면서 회칙에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었다. 이번에 비권연대에서 선거세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우리는 (비권연대 측과) 간담회를 잡아 놓고 있다. 회칙에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충분히 들어 볼 것이다.

> 현재 3명의 직원과 4천만원의 예산으로 7,300의대인의 취업을 책임지고 있다

**(정치 · 학생운동 영역)**

***올해 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라는 특정 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외대내에 건설됐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 후보자로서의 견해와 개인적으로 민노당을 지지 하다면 지지이유를 밝혀 달라.***

정: 학생회가 대중조직이지만, 정치적지향이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권리다.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민주노동당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총학생회에서 민노당지지를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대통령 후보에 가장 크게는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유권자운동으로 등을 통해 노력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37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다면 한총련 대의원이 될텐데, 한총련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달라.***

정: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든 안 되든 한총련이 가고자 하는 방향 기조를 긍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총련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단위학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다는 문제점들을 바꿔나가는 데 함께 할 것이고 한총련을 배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

부: 올해도 동대장으로서 활동하며, 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37대 총학생회에 당선된다면 또 11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써 자랑스럽게 살아갈 것이다. 한총련이 얘기하는 것들 저 역시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나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되면 11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이런 문제점들 고민하고 바꾸는데 노력하겠다.

***혹시 한총련의장 출마 의사가 있는가?***

정: 한총련이 강화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의장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외대 7,300학생들이 하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복지영역)**

***요즘 모든 대학생들의 큰 걱심사는 취업이다. 후보는 취업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정: 공약을 통해 몇가지 약속한바 있는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대에서 취업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학교 관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정보센터도 내실화 해야하고 취업관련교육도 많이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명의 직원과 4천만원의 예산으로 7,300외대인의 취업을 책임질 수 없고 이렇게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타학교의 경우 취업대책 전담교수 등도 있고 다양한 취업특강도 있는데 비해 외대는 전반적으로 학교측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일약하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고시원은 학권과 붙어있어 소음문제 심각하고 타학교에 비해 시설도 열악하다. 해결책은?***

부: 본관이 신축되고 현재 학생회관이 구본관으로 옮겨지게 되면 고시원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아직까지 학교측과 고시원에서 고시원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대해서는 논의나 어떤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이 자리에서 고시원을 어디로 이전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측과 충분하게 고시원 이전대책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

**(문화 동아리 영역)**

***현재 대학가는 학생들의 개인주의로 인해 대학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부총학생회장 후보 강정훈

정: 외대라는 특색을 우리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사진 콘테스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외대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좋은 사진에 대해 상품도 주고 외대인의 정체성 찾아가기 방법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민제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데, 굳이 격년제로 열려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년 세민제가 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충한다면 과내 문화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세계영화제는 노천소음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작품중복 · 공간부족의 문제 · 학생참여부족이 있었다. 보완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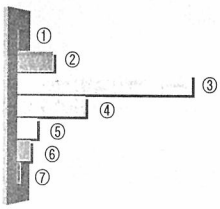
부: 세계영화제는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팀이 있다. 올해 노천극장에서 상영했던 영화는 수업이 끝난 안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수업에는 별다른 지장 없었을 것이다.

세계영화제 준비위가 정식기구로 인준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리 :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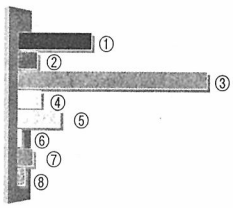
▲언론협의회 내부배실. 오른쪽부터 권정우, 권미란, 서은진

1. 이번 36대 총학생회(김재연-강길수조)는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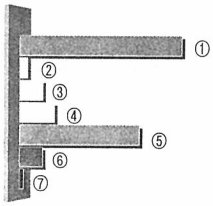
① 아주 잘 지켰다. - 0
② 잘 지킨 편이다. - 11
③ 보통이다. - 54
④ 지키지 못한 편이다. - 21
⑤ 아주 못 지켰다. - 6
⑥ 모른다. - 4
⑦ 무응답 - 1

2. 다음 보기 중에서 36대 총학생회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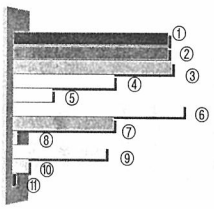
① 등록금 투쟁 - 19
② 재단공영화 -
③ 교문, 도서관 24시간 개방 - 49
④ 총장선출시 학생참여 - 6
⑤ 각종 복지(사물함 확충, 현금인출기 사용 시간 연장 등) - 11
⑥ 반미, 통일 등의 정치투쟁 - 1
⑦ 기타 - 4
⑧ 무응답 - 2

3. 총학생회 활동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십니까?



① 대자보 - 42
② 총학생회 홈페이지 - 2
③ 과, 단대 학생회를 통해 - 6
④ 총학생회 주최 행사 참여를 통해 (정기학생총회 등) - 9
⑤ 활동 내용을 알기 힘들다 - 31
⑥ 기타 - 6
⑦ 무응답 - 1

4. 다음 37대 총학생회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등록금 인상저지 - 40
② 수강신청 개선 - 40
③ 재단 발전 노력 - 41
④ 학생회 신뢰 구축 - 26
⑤ 세계영화제, 세민제 등 교내 문화행사 강화 - 10
⑥ 커리큘럼, 교수 확충 등 교육의 질 개선 - 44
⑦ 기숙사 건립 - 26
⑧ 반미, 통일 등 정치투쟁 - 1
⑨ 취업대책 - 24
⑩ 기타 - 4
⑪ 잘 모르겠다 - 1

분석-서울배움터 37대 총학생회 후보공약

# 학생회 관련 공약 다양해

## 재단 · 등록금 관련 공약 구체적이지 못해

**■학생회 관련**

유복재(사회 · 신문방송 96)-강정훈(동양 · 중국어 98)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약은 이른바 '우리학생회' 만들기다. 외대인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회가 그 목표인 것은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의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점에서 이 공약은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유-강조는 크게 8가지의 틀안에 세부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눈에 띠는 세부공약들을 살펴보면, △서울배움터 학생 중 2% 140명을 모집하여 총학생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2% 모니터링, 학생감시단 △모든 외대인을 포괄할 수 있는 외대 포탈사이트 개설 △과 단합과 자긍심을 높일 각종 과대항 경연대회 개최 △외대인 정체성 제고를 위한 외대사진 콘테스트 개최 등을 들 수 있겠다.

**■재단과 등록금**

지난 20일(수)에 언론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37대 총학생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재단과 등록금문제를 거의 같은 비율로 칫손에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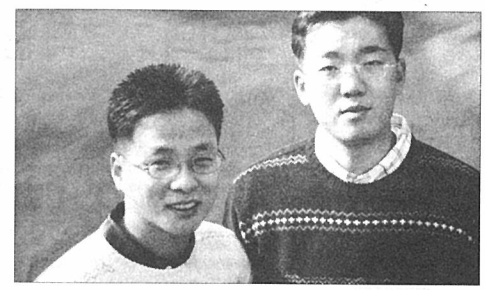
유-강조의 재단 공약의 경우 총학생회가 재단 공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내세워야 하는 원칙과 역할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반면 등록금 공약 중 '등록금 3회분납제도 유지'는 신용카드가 없는 학생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돋보인다.

**■기타 공약**

기타 공약 중에는 △외대 부속 외고에 교원의 일정 부분을 외대생에게 주어지는 임용쿼터제 △기숙사 건립추진 △학생정보센터 내실화, 취업관련 강의 △모의수강신청제도 △강의개설권제도 등이 눈에 띤다.

그 중 모의수강신청제도는 학생들의 만성적인 불만 사항인 수강신청의 해결책으로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도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신경쓴 것과 학생회 관련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꼽는 재단 · 등록금 관련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아쉽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만나보기 -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허환희 (동유럽 · 노어 97)

# 시급한 스쿨버스 30대 지입제 운영 우선 논의할 것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소감 한마디***

선거를 진행하면서 학생회는 선거운동만이 아닌 절대적으로 학우들의 힘으로 세워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함께 이제 시작이란 생각으로 부담도 되고 그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반입니다.

***선거기간 중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가***

단대 선거가 함께 진행되지 않아 학내 선거분위기 조성부담이 컸습니다. 일정도 많았고 추운 날씨로 힘들었습니다.

***지난 23대 총학생회의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1학기 초반 등록금 투쟁 중 지지단식과 총파업에 200~300명의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후 학생들의 힘을 믿지 못하고 협상주위로 흘렀던 것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등록금 투쟁도 힘있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도 형식적으로 된 것 역시 안타깝습니다.

***현재 외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학생들이 이야기 하듯 교통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대로 스쿨버스 30대 지입제 운영을 제일 먼저 학교측과 논의하겠습니다.

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 다음 학기부터 학생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대립'을 기조로 내세웠는데 24대 총학의 대표적 공약과 목적은***

대파대립은 '크게 허물어야 크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자는 것은 그동안 학생들과 괴리돼왔던 학생회를 허물자는 것이구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학생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또 왕산을 대학답게 진보와 토론, 낭만이 있는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기적인 초청공연과 강연, 학회, 소모임의 창설과 강화로 문화의 토대부터 튼튼하게 쌓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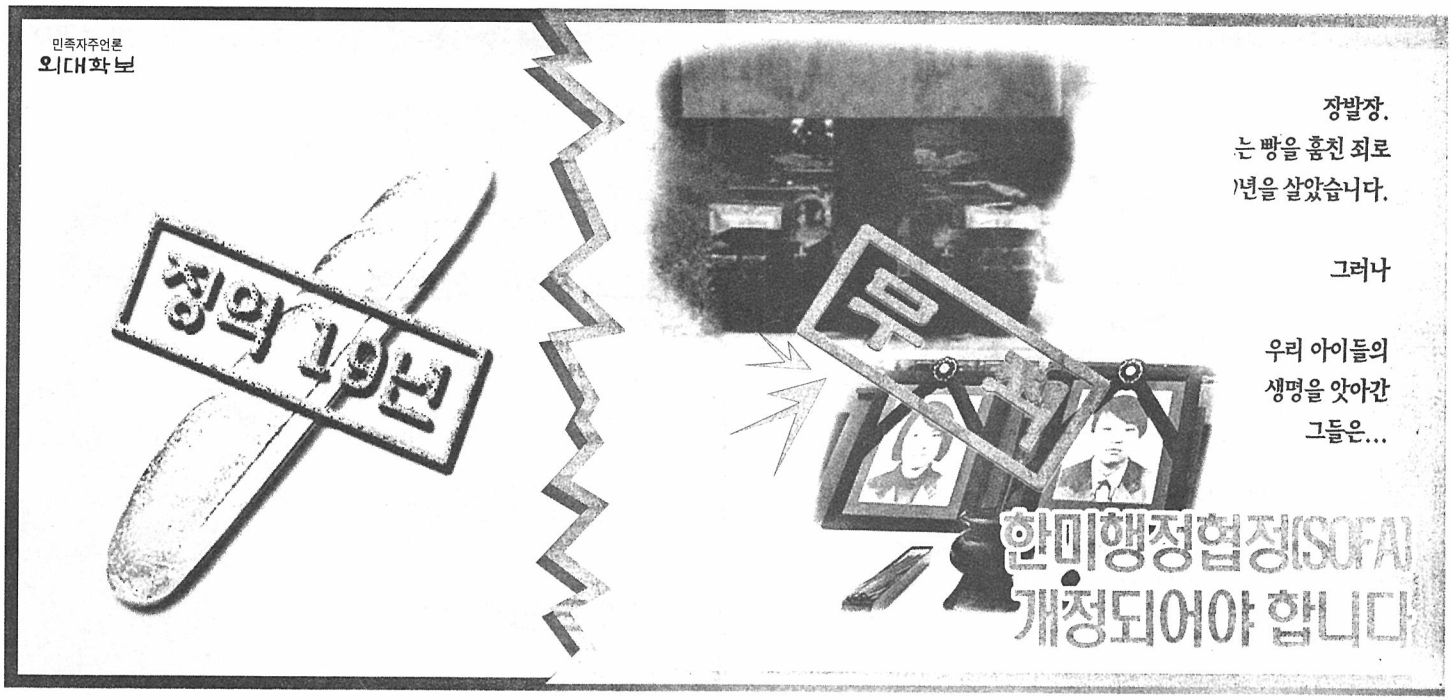
***올해 남은 기간 어떠한 준비와 계획이 있는지***

내년 과회장 당선자님들과 단대장님들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 자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회장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과회장님과 과간부들과 자주 만나 왕산 문제에 대해, 학생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또 out-sourcing 팀체계 팀장과 팀원, 총학생회 간부들을 세우기 위해 전력을 다할겁니다. 또 학생들께 약속드린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하나씩 추진해나가야겠지요. 또 외대중장기 발전안 수립을 위해 교수님들과 면담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겁니다.

***소중한 한 표를 던져준 학생들에게 한마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을 먹고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분들의 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bpress@korea.com



# 선거참여의 폭을 넓혀라!

##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참정권없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재외국민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재외국민을 우리 국민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들을 공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정권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www.hankyore.net) 간사인 정지석 변호사(42·한겨레합동법률사무소)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결성된 한겨레네트워크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운동을 펴고 있다. 유신 선포 후인 지난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에서 부재자 신고 대상자를 국내 거주자로 제한하면서부터 30년동안 해외 부재자는 투표권을 박탈당해왔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유신시대 악법이 대부분 폐지·수정되는 가운데서도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복원되지 못하고 방치돼왔던 것이다. 한겨레네트워크는 부재자투표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의 전면적하용'을 주장하고 있다.

"짐부터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는 정 변호사는 "재외국민들이 처음에는 참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되면 충격을 받는다"며 "약 150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전한다. 정부가 추정하는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약 210만명으로, 유권자 추정치는 150여만명이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당락의 차이가 39만표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의미가 큰 숫자인 것이다.

정 변호사는 '재외국민이 남세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기본권에 해당하는 참정권은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납세와 병역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이나 수형자들에게도 참정권은 주어지고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자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부여하고, 이것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에너지를 나라발전의 원동력으로 끌어오자하는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은 99년부터, 이탈리아는 오는 2003년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권 침해이며 평등권 침해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소수의 개혁적인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 무관심하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패소하기도 해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정 변호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한다. "앞으로 꼭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권리지만 의무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같이 참여해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청소년도 사회의 동반자 선거권 못가질 이유없어

### 세계 80%나라가 만 18세 선거권 부여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목), 전국의 지정된 기표소가 아닌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만 20세 미만만 투표할 수 있는 기표소가 설치된다면?

위의 내용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만 18세 선거권 운동팀 '낮추자'(www.downage.net)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오프라인 행사기획이다. 문화연대와 학벌없는사회전국학생모임, 청소년웹연대 위드(WITH)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뭉쳐 지난 5월 결성된 이 모임은 "만 18세로 선거연령제한을 낮추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7월부터 '낮추자'에 합류했다는 김 주원(건국대 01)씨는 대학교 2학년이지만 만 20세가 되지 않아 이번 대선에 투표권이 없다. 김씨는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유독 선거권만은 만 20세가 돼야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한다. "프랑스나 독일같은 나라는 물론이고 북한도 만 17세가 넘으면 선거권을 줍니다. 전세계 190여개 나라 중 만 20세가 넘어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4개국 뿐이에요. 80%이상의 국가가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김씨와 함께 '낮추자'에서 활동하는 우리학교 박준표(서양·네덜란드어 99)군의 생각은 이렇다. "지금 20대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죠. 그 원인을 따져보면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구조가 삶을 정치에서 분리하는 형태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대학만 가면 돼'라는 식의 생각을 주입받으며 정치에서 소외됐던 청소년이 20대가 돼 정치에 갑자기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거죠"

박군은 특히 '미성숙한 존재'란 이유로 청소년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한 개인의 사리판단능력을 나이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들이 선거권 하향운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청소년은 '미래를 위한 주인공'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더 이상 단순한 훈육과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어른과 똑같이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의 해결방안에 참여할 권리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자는 것이죠."

이들은 "청소년 선거권은 나이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되는 상징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

'낮추자'에서는 현재 12월 19일(목) 투표에 참여할 만 20세 미만의 선거인단과 지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대통령후보들의 청소년관련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각 정당들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 신고서 접수 그 자체가 거대한 정치참여운동

### KAIST 투표운동주역 정우성씨를 만나

지난 21일(목) 연세대가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기준인 2천명을 넘긴 데 이어 22일(금) 고려대, 대구대, 서울대 등 모두 7개 대학이 설치기준을 넘기는 등 대학 내 부재자투표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부재자 유권자 3025명(총학생수 6천)중 2025명의 신고서를 받아내는 '기록'을 수립했다. 부재자 유권자 67%가 신고서를 접수한 셈이다. 이에 투표운동의 주역 정우성(대학원총학생회장, 물리학과 박사과정)씨를 만나보았다.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 시작계기는?**

이전부터 우리대학은 선거때마다 부재자투표운동을 해왔다. 예전에는 신고용지 배부만 했는데, 유뉴스의 '투표소 설치' 캠페인을 보고 2천명을 향한 작전에 들입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과정은?**

KAIST 학생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래서 기숙사 우편함을 통해 14일 밤에 부재자신고용지를 배포했다. 15일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기숙사 관리실을 부재자신고서 접수창고로 활용했다. 이렇게 기숙사에서 1단계 접수운동을 하고 2단계로 연구실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서를 접수받았다. 3단계는 식당과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신고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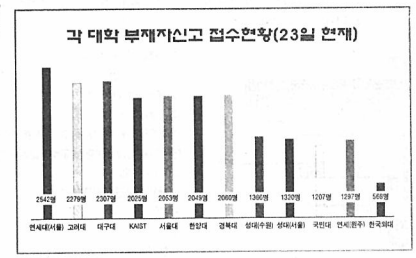
**투표소 설치 진망은 어떠한가?**

유성구 선관위가 부정적 시각의 발언을 많이 해 왔다. 그러나 캠퍼스내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것은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선관위에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다행이도 학교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있어 진망이 밝다고 본다.

**투표소 설치운동이 갖는 의미는?**

부재자신고서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학우들이 다시 한번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느끼는 과정이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는데 큰 힘으로 작용했다.

기사제공 - unews




외대 학술·문학상 광고입니다

현상수배
Wanted

· 현상금 : 총 100만원
· 범인 인상착의 : 시(3편이상)·소설·수필·희곡·비평.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논문 등으로 수시로 변장함
· 신고처 : 양배옵터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oedaepress@hanmail.net
(서울 : 02-961-4152, 용인 : 031-330-4112)
· 기간 :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의사항 : 진범과 복제범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2부 제출)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외환은 외환은행 First Choice Bank

배낭여행!
어학연수!

최고의 전문가 - 외환은행

▶ 해외에서 국내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국제현금카드 발급
▶ 유네스코 공인 국제학생증 발급
▶ 해외어학연수생을 위한 어학연수자금대출 지원
▶ 유럽의 상점, 식당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EURO VISA여행자수표 발행
▶ 건당 미화300불상당액 이상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 해외건강보험료를 15% 절약할 수 있는 해외건강보험우대카드 제공

· 외환포탈사이트(www.Fxkeb.com) 환전 서비스
· 거래은행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환전하는 시이비뱅킹
· 공동구매 형태의 환율우대서비스 직권결제, 송금결제
· 유학포탈사이트(www.yes4study.com) 내 관련 정보 제공

KEB 외환은행
www.keb.co.kr
yes 콜센터 : 서울·경수인(02) 3709-8000·지방 1544-3000

#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 마감 : 매주 금요일 자정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흡산(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로** 외대인이라는 뜻입니다.

## 진정한 大破大立의 총학생회를 기대하며 - 용인총학생회 선거에 대해

용인배움터 24대 총학생회 선거가 끝났고 후보들은 당선되었다. 이번 大破大立 선본은 말 그대로 이전의 문제점을 비판·청산하고, 새로운 학생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며 나름대로 참신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대표성 없는 권위적 대의체계를 해체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등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지금까지 총학생회 모습에 대한 반성을 통해 비약하려는 시도라 여겨진다.

하지만 선본(새로운 총학생회)이 선거과정 중 보여준 몇 가지 모습들은 여전히 선거운동원과 간부들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일반 학우들에게는 그저 투표율을 채우기 위한 투표만이 강요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우선 선거 전 공약과 그 현실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논쟁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참여'는 커녕 후보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알기에도 그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금요일에 공약집이 나왔고 그 다음주 화요일에 선거가 시작되었다. 주말을 제외하면 단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하물며 서로 정책에 관한 토론이나 의견수렴 및 비판이 가능한 정견토론회도 홍보가 전혀 없었기에 우리는 학보를 보고서야 '어? 했었나보네'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여란 고작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겠다' 라는 공약을 내세운 선본에 대해 믿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학보에서 지적한 공약관련 비판기사에 대한 반박대자보이다. 과연 선본은 학우들과 공약에 대한 검토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선본측의 반박대자보는 '김기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외대학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락해왔으며' 등의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교통문제와 같은 왕산학우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공약이 빠져있다는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학생회의 협심력에서 얻어진다, 말하기에는 입이 쓰기에 안 썼다, 기자님의 글쓰기 자체가 흡집을 내기 위한 것' 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공약집에 공약이 안 나와있다면 무슨 수로 아는가? 학생들이 알아서 선본의 속뜻까지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복지 공약 등에 대한 언급이나 고민이 부족했거나 빠져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적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닌가?

선본이 굳구는 '직접민주주의' 란 비판을 들으면 논쟁을 하며 소통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학보기사에 나와있는 반박대자보에서는 그러한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선본의 공약집에는 엄연히 현재 왕산의 지치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2대학' 모임의 이름을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똑같이 사용하였다. (공약집 p6 '제2대학 20번째 만남준비위', p23 '제 2대학 감죄기획팀과 ~' - 강연회 20번 준비하겠다는 내용)

제 2대학은 엄연히 중앙본부가 있는 학술운동단체로서 10개가 넘는 대학에 그 자치조직이 있고, 왕산의 '제2대학 준비모임' 도 홍세화씨 강연회를 비롯하며 현재까지 5번의 대중강좌를 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선본측은 공약집에 사용한 제2대학을 '대안대학' 의 뜻으로 사용했을 뿐 다른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약집에는 이름만 나와있을 뿐 기존의 제 2대학과 다르다든지 대안대학의 의미라든지 그 어떠한 설명도 없다. 또한 포스터를 통해 또 강연회에 왔던 학생회 간부들은 이미 왕산에 '제2대학' 단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명칭을 사용해야 했는가? 게다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지 시간이 지나도 즉각 수정대자보가 붙지 않는 등 전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 후에 나온 선거운동 홍보물에도 여전히 고쳐져있지 않았다. 이러한 처사는 아직 단위가 작고 힘이 약한 자치조직에 대해 무시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선거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총학생회를 꾸린는 이들은 다시 새로운 희망과 계획들로 비빼지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선본이 내세운 학생회와 학우들간의 소통의 벽이 허물어지는 학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보여주었던 비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자치조직을 무시한 태도는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大破大立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한국사회연구회, 사월문학, 기독학생회 SCA. 왕산 제2대학(준)

## 남녀가 불평등한 이유

세계 어디를 가도 현재 상황에서 남녀는 불평등 하다. 남자가 우월시 되든 여자가 우월시 되든 그러한 현상은 인간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남녀간에 존재하는 물리적 힘의 차이를 든다. 그런 근원적 이유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수렵생활을 하고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구·신석기 시절에 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식량의 확보였다. 식량의 확보는 당시에 있어서는 사냥을 의미했다. 물리적 힘이 강한 남자가 사냥에 더 적합 했고 사냥이 생계 유지와 직결된 상황에서 그러한 남자의 위치는 사회적으로 정형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농경사회가 시작될 무렵 농작 역시 땅을 갈고 밭을 일구는 데는 남자의 강한 물리적 힘이 필요했을 것이고 남자보다 물리적 힘이 약했던 여성은 주로 집에 있으면서 밥을 준비하고 옷감을 만들고 하는 소위 집안일에 더 힘을 썼을 것이다. 그리하여 생계 유지와 직결된 농작의 힘은 결국 남성의 강한 힘을 상징하게 되었고 그러한 인식이 수천년을 지나면서 인간들에게 뿌리깊게 박히게 되어 오늘날 까지도 남성은 강인하고 결단력있게 묘사되고 여성은 나약하고 섬세하게 묘사되는 수동적인 모습을 띄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안의 가정적 배경 속에 국가가 형성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성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확고하게 확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의 입장은 비단 옛날 뿐만 아니라 오늘 날의 국가 체계 안에서도 발견된다. 즉 우리나라를 보면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징병대상은 오로지 남성 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 남자가 여자보다 물리적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극한 상황이 전개되는 전쟁터에서 여자의 약한 힘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대적인 사상과 인간 평등사상이 이전까지의 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사회적 탄압과 폭력에 시달렸는지는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전통적으로 입법국가이며 진보국가에 가까웠던 영국에서조차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워진 것은 20세기 초였다. 유대교의 바이블인 탈무드의 부부관계를 보면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고 이슬람교나 힌두교에서도 여성은 노예내지 재산으로 취급된다. 가장 유명한 성서에서 조차 잠자던 남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성이 남성의 우월의식에 의한 사회적 폭력에 시달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리적 힘의 열세에 있다. 만약 거꾸로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강했다고 생각해 보자. 전쟁을 치르는 것도 여자들이고 각 나라의 왕이나 황제도 여자였을 것이며 가정 안에서 속박되어 자유롭지 못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안은 것은 남자였을 것 이다. 극한 상황에 몰린 인간에게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몸부림이다. 역사적으로 몸부림이 선천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에게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이다.

## 한총련의장 실형선고 반대한다

괜한 기대였을까. 끊어졌던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분단의 질곡을 넘어 남북민중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너무 믿은 것일까. 부산아시안게임을 빛내였던 북녘 응원단, 남북 공동응원의 감동과 여운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가.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그 시퍼런 칼날을 품은 창춘들에게 겨누고 있으며, 재판부는 시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공안당국 앞에 포복절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18일 재판부는 10기 한총련의장 김형주군(2002년 전남대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2년,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원을 판결하였다.

공안당국과 재판부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여중생 실인범조차 무죄로 떳떳이 풀려나는 현실에서 사회의 지성이자 양심이라는 젊은 창춘들이 대학 도서관과 강의실에서만 있기를 바란는지 다시금 묻고 싶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도 못대는 '여중생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심판한자' 는 구호를 높이들고 민중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낸 이들이 바로 한총련이다. 당신들의 합법적 권리마저 외세에 의해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한 한총련에게 상은 주지 못할 지언정 이적규정은 말도 되지 않는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김형주군은 작년 11월 전남대학교 2만학우들의 투표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이며, 각 대학 총·부학생회장, 단대학생회장들로 구성되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합법적 대표자이다. 또 한총련은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극복해내고, 합법적 공간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다. 대표적 사례로 이적단체 규정의 근거였던 '연방제 통일강령' 을 삭제하고 '6.15공동선언' 으로 통일강령을 대체하였다.

재판부는 한총련의 이런 노력을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한 단체의 성격과 실체를 규정하는 강령을 바꾸는 작업이 단순한 눈속임일 수 없음에도 '편견' 에 사로잡힌 분단세력의 낡은 시야일 뿐이다. 또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독재정권 시절 악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북의 남침위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북한은 반국가단체' 이고, '한총련은 이적단체이다' 라고 비라보았다. 도대체 누가 '적' 이란 말인가!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이북은 더이상 우리가 배척하고 봉괴시켜야 할 적이 아님은 21세기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전국민적 공분이며 의지이다.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모아지고 있는 전민족적인 통일지향에 반하는 검찰과 재판부의 행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형주 한총련의장에 대한 실형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총련의 정당성은 분단시대의 관념에 사로잡힌 사법적 판단으로 증명할 수 없다. 재판부는 즉각 한총련의장을 무죄석방하여야 한다.

김민석 (서양·영어 97)

## 그때를 아십니까?

최근 학생들 사이에 가장 자주 거론되고 불만거리로 불거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내 셔틀버스 문제로, 이것은 지금까지 수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총학생회 입후보자들의 공약사항으로 거론될 만큼 이슈화되고야 말았다. 따라서 이미 사라져 옛 명물이 되어 버린 당구장 차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되살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 보고자 이렇게 투고를 결심하게 됐다.

한때 캠퍼스 왕복 4차선을 쫑미했던 당구장 셔틀버스. 지금의 구내 순환버스 보다도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훨씬 더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목적지로의 이동을 가능케 했던 이것이, 어느새 슬쩍 종적을 감춰 버렸다.

때는 본인의 입학 년도인 1995년. 교내에 마땅한 교통 수단이 없던 당시 학생들의 가장 보편적인 발이 돼 주었던 것은 물론 당구장 셔틀버스였다. 당초 모현면에 신재해 있던 당구장들이 업소 홍보 및 서비스 차원에서 학생들의 '민심' 을 잡기 위한 차량 운행을 시행해 이것은 다소 상업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덕택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한때 B 당구장 셔틀버스 운수업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했던 학생 중 하나였던 나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학생들을 승차시키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지금도 당시 B 당구장 몇몇 단골들과도 유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시간당 2000원이라는 박봉 속에서도 여러 부류의 학생들을 대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주고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신규면허 취득 후 얼마 안된 시점에서 나의 운전욕에 대한 해소의 원천이 됐다는 점 때문에 나는 즐기면서 근무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P.C 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당구 수요 인구도 현저히 감소, 당구장들은 그만 그 설자리를 뺏겨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경영난 악화 및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당구장들은 하나 둘씩 '점포정리' 를 하게 됐고, 비록 현재까지 생존한 당구장들마저도 당구장 요금의 마지노선인 10분당 700-800원대에 못 미치는 500원대라는 턱없이 낮은(?) 가격에 손님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교내에서의 교통 수단을 잃어버린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은 당연지사. 궁여지책으로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배려한(?) '식빵차' 덕분에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으나, 등하교 이외의 시간에는 들쑥날쑥한 배차간격으로 학생들의 불만만 가중시켜 왔다. 이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이번에 새로 선출될 임원진들에게 맡겨보는 수밖에 없을 듯 싶다.

누구나 손만 들면 언제 어디서나 서 주었던 당구장 차. 요즘 등하교 길 서너 번의 환승과 콩나물시루 식빵차에 지쳐버린 나는 더더욱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유정한 (동유럽·노어 95)

## 생활정보

### 주거정보

▫서울배움터 후문
도보로 2~3분
방2,화장실,도시가스보일러(빈지하)
전세3000
연락처 011-9802-1782

▫서울배움터 후문
2층원룸/보증금4000 월40
연락처 017-528-3221

▫서울배움터 외대역 (하숙)
도보로 5분~10분
연락처 011-866-4875

▫서울배움터 정문
외국인룸메이트구함
12평/비디오,컴퓨터,책장,오디오
여학생만가능/월10만원
연락처 keun-a81@hanmail.net

▫서울배움터 후문
7평 원룸(한국인19만원 일본인15만원)
전기,세,수도,세,건물관리비부담
싱글침대2개,컴퓨터,프린트,티비
일본인대환영/여자만가능
연락처 011-9355-5752

▫고대앞 원룸
방하나부엌,가스 보일러
016-741-7490

### 삼니다

▫세탁기,가스렌지,전기밥솥책장구함
그남주서도 됨 .
연락처 017-310-0258

▫황남기 한법2002기본강의 테잎
연락처 bcfarc@hanmail.net

▫월간 텝스 교재 삽니다.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출간된 과월호나
2002년 11월 2일호 월간 텝스
lonatasha@hanmail.net

▫신경향 시사토플
답이보이는 토익2장교환가능
연락처 koree@hanmail.net

### 팝니다

▫21단 코렉스 자전거
구입가10만원 판매가6만원
연락처 016-707-0233

▫동남아학 개론(양승윤)
구입가12000원 판매가 6000원
약간의필기 거의새책
연락처 016-708-5684

▫River MP3 플레이어
인터파크에서 구입
포장안뜯은 것
구입가19000원 판매가 17000원
연락처 016-717-5807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나온 특허법(실용신안법 포함)책 팝니다.
개정 6판임, 연필자국 하나 없는 새책
-구입가:26,000
-판매가:20,000
연락처:018-222-9420 godism@hanmail.net

▫통대 입학 시험 문제지
2001~2002년도 통대시험문제 모아놓은 문제집
- 구입가:3만원
- 판매가:2만원
한독과 문제와 공통영어 몇점
016-9202-2560, yudith@hanmail.net

▫전기밥솥
4인용 만원에 팝니다
연락처 018-213-0743

▫FP(금융자산관리사)교재
총5권
구입가 8만원 판매가5만원
연락처 016-831-0352, nivena00@empal.com

▫이태리 계약서번역
A4용지 4매
급료 전화로 협의
연락처 019-9224-0632

### 아르바이트

▫영어보조강사구함
자격조건-3학년이상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여학생, 장기근무가능자
초보자는 강의방법 지도
듣기, 수능독해,문법강의,특히 고교내신대비
근무조건-저녁수업(6시~11시)
3~4일 기준 100만원
본인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메일로 발송
연락처 016-230-5620 /draphoe@hanmail.net
저녁11시 이후 통화가능

▫독서실 오전 층무
구의역 1분거리, 오전 9시~오후 6시
에비역이상,복학생, 급여 35만원
연락처 459-8869

▫ECC KOREA
기업체 출강 파트타임 스페인어 강사
연락처 02-733-9950
담당 이영옥대리/http://www.eckorea.com

### 알림

▫교양특강연기안내
일시:2002년 11월 28일(목)오후4시
장소:시청각교육원 2203호
연재:국회외행정부
연사:송대호서기관(국회정보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실)

### 구함

▫과외 선생님 구함
과외 받을 사람-고2 (한달 뒤 북경으로 가게 되어 중국어 가르쳐 주실 분)
자격요건 - 중국에서 거주경험이 있는 분
발음이 좋으신 분, mangomom@hanmail.net

## 백지 대자보

### 연세대학이 기여입학제를 실시했다는데

· 역시 돈이 최고군 ..쩝 -난 돈 없수

· 돈 있음 다 가나? -응 -어,미안 -허무하군

·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 돈이 그리 좋수? -촛불하나

· 차라리 액수를 왕창 늘려라~아무나 못하게! -차별화해!

· 많은 돈으로 재학생들에게 혜택이 온다면야.... -난 찬성

· 좋은데요? 우리학교도 추진해요. -나두 찬성

· 어차피 하는 것인데 양지로 내보내자 -기왕이면

· 복권이라도 사야겠군 -돼지꿈

· 돈 있으면 대학가고~돈 없는 놈은 죽으란 말이냐? -참나

· 돈없으면 공부해서 가요! -우등생

## 학보기획 시기적절해

외대학보 817호, 818호 비평

11월 접차 겨울이 깊어져가는 듯한 날씨이다. 우리학교 캠퍼스도 추위에는 예외일 수 없듯이 학우들의 옷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17호 학보에서도 날씨를 느꼈는지 캠퍼스 난방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특히 외대 학우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학생회관이 초점이었다. 현재 학생회관의 난방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열기구 사용자제를 주장하는 학교측과 그것에 대해 다른 학교의 사례를 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준 것이 눈에 띄었다. 학생회관 난방시설이 잘 되어있는 건국대학교와 학생회관에서의 숙식은 불법이라며 오히려 동아리방과 과방에 자체적으로 마련해놓은 전열기구를 수거하려는 우리학교의 실상을 대비시켜 보여준 점은 학교 측의 학관난방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한 것은 좋았지만 학교측에 해결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아쉬웠다.

제818호 학보에는 학부,계열제 폐지를 다루었는데 외대가 개혁의 흐름을 타고 있는 현재 적절한 시안이지만 예전부터 나온 시안이며 학부,계열의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학우들은 물론이고 교수님들까지도 학부, 계열제의 폐단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학교의 변화의 움직임을 포착함과 동시에 학내 여론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학부,계열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

향후 5년간 국정을 말을 대통령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 대선이 30일도 남지 않았다. 요즘 도서관과 붉은광장에서는 부재자신고 설치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외대학보 역시 819호에서는 선거관련 기사를 다루었다. 캠퍼스 투표소 설치에 관한 기사내용에서 대학생 층의 선거참여를 위한 부재자 투표의 중요성과 서울 캠퍼스 부재자 투표소 설치의 애로사항을 기사화 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안병만 총장의 YTN대담의 발췌기사가 쓰였다. 외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대담에 관해 약간의 외대 학우들 생각을 담은 기사가 덧붙여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기행문 - 독일 베리히테스가덴을 다녀와서

# 잊지못할 호수에서의 추억

독일의 교환학생으로 체류할 때 당시 나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완행 열차에 내 몸을 의지하고 독일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바이에른 주 여행을 시작했다.

독일의 기차 요금은 한국의 기차요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싸다. 내가 있던 곳에서 베를린까지 특급 열차를 이용해서 갈 경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왕복 비행기 요금보다 비싼 요금이 나온다. 가난한 유학생이 특급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독일 철도 측에서는 완행 열차는 싼 가격에 운행하고 있다. 각 주마다 각 주의 이름을 딴 기차표가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경기도 티켓 하는 식이다. 이 표는 요금이 약 2만5천원 정도하는데 5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그 표가 속한 어느 도시에나 당일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갈 수가 있다. 완행 열차라고 해서 시설이 안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독일 철도는 쾌적한 실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독일 유학생들이 이 표를 애용한다. 필자도 이 표를 이용해서 독일의 최남단 지역까지 가본 적이 있다.

이 표를 이용해서 갔던 곳 중의 하나가 바이에른 주에 속 에 있는 베리히테스가덴(Berchtesgaden)이라는 곳이다. 독일 내에서도 최고의 휴향지로 꼽히는 곳으로 2차대전의 주범 히틀러의 별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알프스 산맥과 같은 독일의 산들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푸르름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웃국가인 오스트리아 잘쯔부르그(Salzburg)에서도 기차로 한시간 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인들도 즐겨 찾는다. 한국 배낭 여행객들이 잘쯔부르그는 많이 방문하는 반면 베리히테스가덴은 잘 찾지 않는데 아무래도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잘쯔부르그 보다는 이곳이 훨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감동이 큰 곳이라고 생각된다.

> 베리히테스가덴에는 히틀러 별장을 관광지화 시켰고 주위에 알연 광산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
> 멋진 호수와 잘 조화를 이룬 빨간 지붕의 그 사원은 앙증맞은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고 있었다.

베리히테스가덴에는 히틀러 별장을 관광지화 시켰고 주위에 알연 광산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히틀러 별장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 외에는 항상 길이 얼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한다. 내가 갔을 때에도 기후 때문에 별장을 아쉽게도 구경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주위에 왕의호수라고 불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을 구경 할 수 있었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 쌓인 호수인데 약 2시간에 1대꼴로 관광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마음껏 자연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광선 또한 축전지를 이용해서 운행을 함으로써 소음 또한 최소화 시켰다고 한다.

이 배를 타고 정신없이 자연의 파노라마를 구경하고 있을 무렵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시동을 끄고 정지한다. 그러면 승무원중 한 사람이 트럼펫을 이용해서 멋진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 음악은 주위 산들에 울려 퍼져서 메아리쳐 다시 돌아온다. 이 트럼펫의 소리는 어떠한 훌륭한 콘서트 홀에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소리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콘서트 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청명한 소리이다. 이 소리는 아직도 나의 귀에서 생생하게 메아리 치는 듯 하다.

연주가 끝나면 배는 다시 움직이고 배는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수도원에 도착한다. 멋진 호수와 잘 조화를 이룬 빨간 지붕의 그 사원은 앙증맞은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외롭게도 보이기도 하는 이 사원은 관광객들이 없는 계절에는 쓸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수도사들이 사원일층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해서 커피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먹고 있었다. 케익과 커피를 한잔 한 후 다시 배를 타고 선착장으로 돌아 왔다.

약 2시간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마치 동화속의 어떤 신비한곳을 갔다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자연환경이 멋진 곳이었다. 유럽을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이곳을 필수로 방문하라고 적극권장하고 싶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속에 지칠때면 나는 가끔 그 호수에서 들었던 트럼펫 소리를 떠올린다.

조성완
〈서유럽 · 독일어 96〉

# 아무도 '이방인'일 자격은 없다

## 알베르까뮈의 이방인을 읽고

나는 진정한 상상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다위로 반사되는 그 빛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괴로움을 씻어주고 희망을 안겨주기라도 한 듯 신호등과 별들이 가득 찬 밤하늘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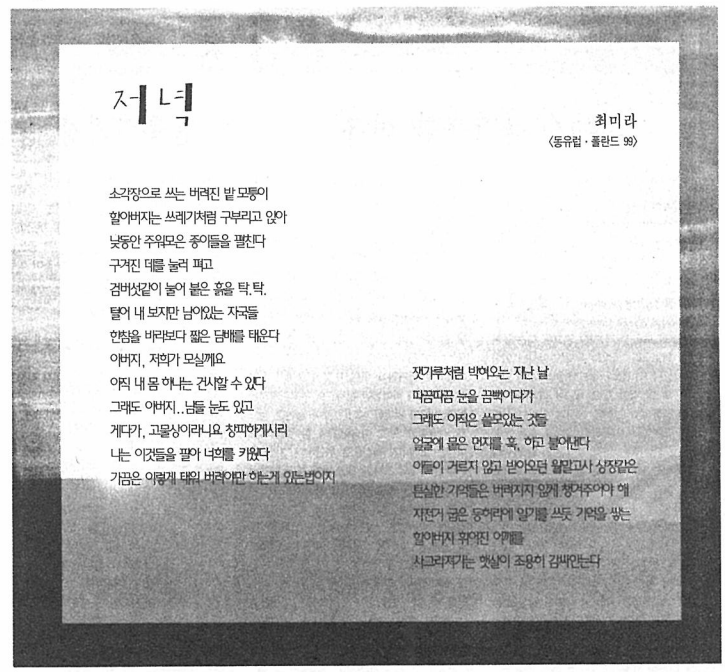
어제 본 실용영어 퀴즈 한문제에 조차 초연하지 않은 나, 이런 나를 혼란에 빠뜨린 이 가 있었으니, 바로 알베르 카뮈다. 그의 말마따나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한 말이, 사람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말이 틀렸음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한다.

뫼르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그것은 자기 탓이 아니고, 누구도 어머니가 죽은 걸 슬퍼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녀'가 결혼하자고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그녀에 대한 사랑에는 무관심한 사람. 어느것도 어느 누구도 어머니도 열집 늙은이의 병든 개도, 뫼르소에겐 '그저 그런 것, 대단치 않은 의미'일 뿐이다. 이런 뫼르소와 세상사이의 유리, 이 기분 나쁜 인간이야기를 왜 나는 계속 읽었던 것인가.

50년대에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당시에 그랬듯, 하마터면 나도 이 작품을 단지 '허무주의'로만 볼 뻔했다. 그러나 소설을 읽을수록 카뮈의 글은 웬만해선 박수칠 줄 모르는 오만한 나의 손을 놀래 켰고, 급기야는 긍정적인 충격을 주었다. 책을 읽는 내내 내 머리 속을 떠다니던 생각은 주인공 뫼르소가 일면, 나와 비슷한 놈 같다는 것이었다. 우유부단하나 이를 잠점인양 뻔뻔하게 살고 있으며, 세상을 감히 관조하려 드는 점이 말이다. 물론 나는 나와 나의 가족, 친구, 대~한민국과 베를린에 사는 랄리트에게까지 적지 않은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뫼르소 보단 그나마 낫지만, 그러나 난 뫼르소의 양태에서, 가끔씩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 공허한 비판을 하거나, 일부러 고독을 씹었던 내 모습이, 썩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태양을 견딜 수 없어서 저지른 살인, 그것은 찰나의 감정의 격양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무의미함으로 변명하려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 결코 다른 것은 될 수 없다. 세상에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요철거울을 비추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기특한 작품. 그리하여, 아무도 이방인일 자격은 없다. 아무도 '부조리'와 '부조리하지 않은' 모든것에 무관심할 자격은 없다.

장효민
〈서양 · 독일어 01〉



## 자 - 네 - 릭

최미라
〈동유럽 · 폴란드 99〉

소각장으로 쓰는 버려진 밭 모퉁이
할아버지는 쓰레기처럼 구부리고 앉아
낮동안 주워모은 종이들을 펼친다
구겨진 데를 눌러 펴고
검버섯같이 눌어 붙은 흙을 탁.탁.
털어 내 보지만 남아있는 자국들
한참을 바라보다 짧은 담배를 태운다
아버지, 저희가 모실께요.
아직 내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다
그래도 아버지...느들 눈도 있고
게다가, 고물상이라니요 창피하게시리
나는 이것들을 팔아 녀희를 키웠다
가끔은 이렇게 태워 버려야만 하는게 있는법이지

잿가루처럼 박혀오는 지난 날
따끔따끔 눈을 끔뻑이다가
그래도 아직은 쓸모있는 것들
얼굴에 묻은 먼지를 훅, 하고 불어낸다
이들이 거르지 않고 받아오던 월간고사 상장같은
튼실한 기억들은 버려지지 않게 창겨주어야 해
자전거 굽은 동허리에 일기를 쓰듯 기억을 쌓는
할아버지 휘어진 어깨를
사그라지기는 햇살이 조용히 감싸안는다

www.downage.net
12월 19일에 선거권이 없는 만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대선모의투표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지지자도 모집중입니다